백두산2

21세기 태양 대학시절

주체91(2002)년 4월 29일

이신작칙 1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청년대학생들을 리론과 실천을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로 준비시켜나가는 데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은 대학기간 강의와 책을 통해 많은 지식을 이론적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리론이 공고한 것으로 되자면 그리고 실지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이 되자면 그것은 반드시 실천과 결부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론만 알고 실천할 줄 모르는 글뒤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10년 동안을 방안에 들어앉아 글만 외우던 한 선비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붙은 불을 어떻게 꺼야할 지 몰라서 쩔쩔매다가 동네 아낙네들이 물동이로 물을 길어다 끼얹어 끄는 것을 보고서야 ≪수화상극≫이라는 말의 뜻을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미 고중시절에 학생들에게 실천을 떠난 이론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시면서 하신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일찍부터 학생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 실지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을 체득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시절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청년대학생들을 리론과 실천을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로 준비시켜나가셨습니다.

당시 대학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찍이 내놓으신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시킬 데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대학생들을 생산실습과 수도건설을 비롯한 실천활동에 적극 참가시키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기에 적극 참가하시어 로동속에서 귀중한 현실체험을 쌓아나가시는 한편,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청년대학생들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실로서 경애하는 그분께서 생산실습에 참가하신 데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생산실습은 주체50(1961)년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 약 20일간 평양방직기계제작소(오늘의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당시에 진행된 생산실습의 목적은 우선 기술공학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을 통해 공고히 하고 선반, 볼반과 같은 한 가지 이상의 공작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기능을 습득하는데 있었습니다. 그 목적의 다른 하나는 공장관리운영방법과 노동계급의 혁명정신을 체득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실습기간 우선 노동생활을 하시면서 귀중한 현실체험을 쌓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실습의 첫날부터 자신을 기대공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시고 로동자들과 꼭같이 생활하시었습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출근하셔서 작업장과 주변 뜨락을 말끔히 청소하곤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작업이 시작되면 담당기대공과 함께 분초를 아껴가시며 긴장하게 기대를 돌리셨구 점심시간이 돌아오면 노동자들과 함께 작업장휴게실에 있는 긴 의자에 앉으시어 허물없이 밥곽을 풀어놓으시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퇴근길에 오른 노동자들 속에 스스럼없이 어울리시어 시내뻐스정류소에서 뻐스를 기다려 타시고 댁으로 향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찌나 겸허하고 소탈하게 생활하셨던지 노동자들은 그분과 같은 일터에서 일하고 함께 뻐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얼마 동안은 그이가 누구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지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26호선반을 맡으셨는데 담당기대공을 돕고 이끌어 주셔서 그를 모범기대창조의 앞장에 내세우시었습니다. 26호선반은 당시 공장에 들여온지 5년밖에 안된 기대였지만 매우 낡아 보였습니다. 주축함은 도색이 벗겨져 얼룩 덜룩 했고 면판과 배트는 쇠망치로 두드려서 흠집이 크게 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남 먼저 출근하시어 기름걸레를 들고 기대를 알른알른하게 닦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싸리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꼬챙이를 깎으시어 그것으로 볼트홈과 자그마한 구멍에 낀 먼지들까지 깨끗이 파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시까지 기대의 겉면이나 대충 닦아내는 것으로 청소를 대치해 온 기대공에게

> **≪병사들이 자기 무기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무기가 고장나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계급도 설비가 불비하면 생산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사들이 무기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설비를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선반을 새 기대처럼 만들어봅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몸소 칠감을 얻어다 벗겨진 곳들에 색칠을 하셨구 면판과 배트에 난 흠집들은 줄칼로 갈구어 연마기로 완성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6호선반은 불비하던 모든 개소들이 새 모습으로 변모됐습니다. 한 점의 흠집, 한 점의 티도 없는 새 기대로 됐던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반을 원상복구하신 다음에는 나사틀개며 각종 스빠나와 뻰찌, 포금망치와 같은 각종 공구들을 하나하나 손수 만드시어 텅 비어 있던 공구함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26호선반에 지펴주신 원상복구를 위한 혁신의 불길은 공장의 모든 기대들에 번져져 새 것처럼 만들어지게 됐고 대중적인 공구갖추기운동이 세차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기대를 새 것처럼 만들고 공구를 그쯘하게 갖추어 놓으니 생산은 날마다 쑥쑥 올라갔습니다.

모범기대창조운동은 바로 이렇게 발단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펴 올리신 모범기대창조운동은 로동자들로 하여금 기대관리에서 주인된 자각을 높이고 일본새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운동은 그후 전국적으로 힘있게 벌어진 ≪26호선반을 따라 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의 시원으로 됐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편 공장의 관리운영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구 개선 대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이 공장에서는 오래 전에 제정한 노동기준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능수준이 높아진 노동자들의 창발성을 오히려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한 개의 제품을 가공하는 데 몇 분밖에 안걸리는 것을 20분이라는 기준시간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전반실태를 요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장일꾼들에게 노동자들의 평균기능수준을 고려해서 노동정량을 다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를 계기로 공장관리운영사업 전반을 구체적으로 요해 연구하시고 작업반장과 직장장, 공장관리일꾼들의 임무와 공장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를 세세히 가르쳐주셨습니다.

(2면에 계속)

대학시절

이신작칙 1
이신작칙 2
이신작칙 3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또한 몸소 기술혁신의 앞장에 서시어 노동자들의 가슴에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셨습니다. 당시 26호선반을 가지고서는 고속도강력절삭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칼날같이 뻗어나가는 절삭밥이 뒤엉키면서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몸소 그 위험한 고속도강력절삭을 해 보시면서 바이트를 개조해서 위험도 없애고 생산도 높일 수 있는 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묘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이트의 절삭날 각도를 크게 하고 안내홈을 내주는 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안에 따라 바이트를 개조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처럼 사납게 날뛰던 절삭밥들이 순한 양처럼 길들여져서 안내홈을 따라 고르롭게 밀려나왔고 속도를 아무리 높여도 기대에서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6호선반에서는 그것이 생겨서 처음으로 최고의 실적을 내게 됐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기대공들에게 자기 맡은 기대에 정통하며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해서 자동화해야 하겠다는 열의를 북돋아주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생산실습기간에 또한 노동자들의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다심하고 인정 깊은 사랑을 안겨주셨습니다.

로동자들의 합숙을 찾으시어 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5.1절에는 온 공장이 양각도에서 즐거운 야유회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배구경기를 조직하시어 온 공장이 떠나갈 듯이 분위기도 높여 주셨구 노래가 있어야 일터가 흥성거린다고 하시면서 노동자들의 예술소조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공장에는 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에게 부모형제를 다 잃은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헤아려보시고 그들의 혈육을 찾아주시기 위해 무척 애를 쓰셨습니다. 전쟁 때 형과 헤어진 한 나 어린 선반공에게 형을 찾아주시려고 하루일을 마치고 댁으로 오시어서는 여러 곳에 전화를 거시어 이름밖에 모르는 사람을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습니다. 형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서는 밤이 깊도록 그와 마주앉아 편지초안을 만들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의 형을 찾아주신데 이어 불과 며칠 사이에 또다시 다섯 명의 로동자들에게 잃었던 혈육을 찾아주시는 은정깊은 사랑을 돌려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인품과 뜨거운 사랑에 감동된 노동자들은 그분을 친형제와 같이 따르고 존경해 마지않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이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깊은 감회에 잠기시며 26호선반과 함께 보낸 로동생활의 나날을 일생동안 잊을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기간에 진행된 생산실습을 통해서 우리 인민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기셨을 뿐 아니라 평양시건설에 참가하시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학생건설자들을 힘있게 고무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작칙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기 들끓는 현실 속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청년대학생들을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생산실습에 이어 그해 5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평양시 와산동용성사이도로확장공사에 참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공사에 참가하신 첫날부터 마지막날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청년대학생들의 앞장에 서시어 그들을 힘있게 이끌어주셨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산동용성사이도로확장공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50(1961)년 9월에 있게 될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를 앞두고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아름답고 웅장하게 꾸리기 위해 선정해 주신 공사대상의 하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체 학생들을 궐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공사 전기간 학생건설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리고 기계화를 적극 받아들여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현명하게 이끄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사 전반을 지휘하시면서두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시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청년대학생들을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 나가시기 위해 무엇보다도 공사 첫날부터 어려운 작업에 한 몸을 잠그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웃동을 벗어제끼시고 하루종일 메질도 하시고 목고채가 휘도록 흙을 가득히 퍼담아 메시고는 쉼없이 달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성차지 않으시어 작업에 착수한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3인2조목고를 발기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네 사람 몫을 감당하는 이 방법은 여간만 힘겹지 않았으나 그이께서는 단 한 번도 목고채를 어깨에서 내려놓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 학생건설자들이 한 두 삽이라도 흙을 적게 담으려고 하면 어서 더 담으라고 이르곤 하셨습니다. 그이의 부어오른 어깨를 보며 동무들이 근심스런 낯색을 지으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이 목고를 할 때는 그래도 목고채를 몇 개씩 꺾어먹을 생각을 해야지 어깨가 아프다고 갑살하게 메고 달랑달랑 다닐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목고하다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라고 롱담을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학생건설자들과 함께 로동의 기쁨과 보람을 한껏 느끼시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학생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온 건설장에 희열과 랑만이 차 넘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댁에 찾아간 대학의 한 일꾼이 어버이 수령님께 **김정일**동지의 어깨가 붓고 여러 번 벗겨졌다고 걱정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일**동지를 미덥게 바라보시며 젊은 시절의 고생은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단단히 단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 솔선수범을 보이시면서 학생건설자들을 계속 힘있게 떠밀어나가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무엇보다도 작업의 능률을 높이면서도 일은 헐하게 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을 적극 추동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작업 첫 시기에 통나무로 기중기를 만들어 등짐을 대신하게 하시는 수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이께서는 공사 전반을 언제나 깊이 헤아려보시고 가장 걸리고 있는 부문에 찾아가시어 그를 해결해 주시어 공사가 전반적으로 빨리 진척되어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당시 도로공사전반을 다그치는 데서 선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 오수관공사였습니다. 이 오수관공사를 위해서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굴착기를 가지고 나와 대학생들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굴착기로 구뎅이를 얼마나 빨리 파는가에 전반적인 공사를 계획대로 내미는가 못 미는가 하는 문제가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뎅이를 파나가던 굴착기가 진탕에 빠져 일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사 전반을 헤아려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곧 그곳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무한궤도 밑을 이러저리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맥을 놓고 앉아있는 군인들에게 굴착기가 멈춰서면 공사 전반이 지장을 받게 되는 데 이렇게 맥놓고 앉아있기만 하면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함께 대책을 세워보자고 하셨습니다. 군인들로부터 무한궤도 밑에 침목을 깔면 된다는 말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침목을 깔고 작업하면 굴착기가 빠지는 일도 없구 운전하기에도 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가서 침목을 가져오겠다는 군인들을 만류하시고 자신께서 구해보겠다고 하시며 곧 자리를 뜨셨습니다. 군인들은 아마도 그이께서 현장지휘부에 들려 침목이 있음직한 데다 전화로 부탁을 하시고 그러느라면 적어도 반나절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경적소리를 울리며 침목을 가득 실은 화물자동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운전칸문이 열리며 작업복이 한 소나기를 맞은 듯 땀에 푹 젖으신 장군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군인들의 가슴은 크나큰 감동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마음의 충격으로 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군인들의 등을 밀어 곧 침목을 부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어린 군인을 도와 침목을 함께 메어 나르셨습니다. 군인들은 침목을 까는 일은 저희들끼리 하겠으니 장군님께서 어서 떠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이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시며

≪이러지들 마시오, 동무들이 하는 일을 나라고 못하겠습니까. 사람은 무슨 일이나 다 해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모두 달라붙어 제꺽 끝내고 다 함께 쉬자고, 그래야 쉬는 재미도 더 있다고 하시면서 발목까지 빠지는 진창 속에 들어가셔서 침목을 깔아나가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굴착기는 침목 위에서 다시금 용을 쓰며 땅을 파제끼게 됐습니다. 굴착기의 작업모습을 보시고서야 그곳을 떠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곧 잠시의 휴식도 없이 다른 작업장으로 향하셨습니다.

군인들과 학생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장

군님의 이 숭고한 모습을 보면서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혁명적 신념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시 보여주신 이신작칙의 모범을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간혹 먼 화물역에 가서 급히 물동을 운반해와야 할 일이 생기면 점심밥곽을 열으셨다가도 수저를 놓으신 채 남먼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서슴없이 오르셨습니다. 또 굴착기가 고장나 돌아가지 못할 때에는 그 육중한 부속품을 기계공장에 손수 가지고 가시어 수리해 오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분께서 보여주신 이신작칙의 모범은 도로공사에서 언제나 학생건설자들을 위훈에로 이끄는 투쟁의 기치로, 깃발로 됐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 더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파놓은 오수관선에 눈 깜짝할 사이에 물이 절반이상 차 올랐습니다. 당장 물길을 내지 않으면 한 길 이상 파놓은 오수관선이 다 허물어지고 작업 중에 있던 굴착기도 물 속에 잠기게 될 형편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일하던 다른 사람들은 비가 쏟아진다고 다 철수했고 작업장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몇 몇 인원만 남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남은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까지 들어가면 지금까지 파놓은 오수관선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게 되니 여기에 물길을 내자고 하시면서 자신의 뒤를 따르라고 하시고는 곡괭이를 쥐드시고 물 속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던 사람들도 연달아 물 속에 들어섰습니다. 그분께서는 얼굴에 흘러내리는 빗물을 손으로 훔치시며 세차게 곡괭이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은 자꾸 불어나 허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이께서는 일손을 멈추시고 기운들을 내라고, 이런 때엔 노래를 불러야 힘이 난다고 하시며 혁명가요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공사장에는 힘찬 혁명가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비를 피해 작업장을 떴던 다른 사람들이 공사장에서 난데없이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에 큰 충격을 받고 모두 작업장으로 달려와 일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건설자들은 몇 시간 동안의 긴장한 작업 끝에 물길을 열고 마침내 오수관선을 빗물의 피해로부터 구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이신작칙의 모범과 정력적인 지도로 학생건설자들을 이끌어주시어 공사장에서는 날에 날마다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됐습니다.

이상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와산동용성사이도로확장공사에 참가하여 보여주신 이신작칙의 모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이께서 보여주신 이신작칙의 모범적인 사실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그처럼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뛰어드시고 어깨가 붓고 잔등이 햇볕에 타서 몇 번이나 벗어지면서도 손에서 곡괭이나 목고채를 놓지 않으신 그 소행의 기초에 무엇이 놓여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인간이시고 그토록 힘겹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누가 탓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이께서 어버이 수령님의 말씀 한마디한마디를 절대성의 정신으로 받들어나가시는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계신 데 기인됩니다. 이미 말씀 드렸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젊은 시절의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고, 제일 힘든 일을 하라고 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말씀을 명심하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에나 어버이 수령님의 말씀을 철의 의지로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을 이끄시기에 우리 조국은 모진 광풍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한 길로 굳세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작칙 3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청년학생들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 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시켜 나가신 데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주로 평양방직기계제작소에서의 생산실습과 평양시 와산동용성사이도로확장공사에 참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떻게 청년대학생들을 이끌어주셨는가 하는데 대해서 보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시에 또한 군사야영훈련에도 적극 참가하셔서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숭고한 모범으로 야영생들을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혁명을 하자면 군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현시대의 정치가는 문무를 겸비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군사가가 지닐 수 있는 모든 자질과 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위대한 영장으로 명성을 떨치고 계십니다.

군사지략이나 전법이 비범하심은 더 이를 데 없고 뛰어난 지휘력과 전투기술기재에 능통하심은 그 어느 명장에 비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의 지적능력과 활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장군들을 보더라도 보병을 잘 알면 땅크를 잘 모르고 땅크에 박식하면 비행기에 무식하고 비행기에 능통하면 함선에는 어두웠습니다.

그렇지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그 한계를 모르는 분이십니다.

실례로 비행사들이나 항공지휘관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신화에 나오는 신통력을 지니신 위인이시라고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위급한 정황 속에서도 하늘의 조화를 꿰뚫어보시고 비행지휘를 능숙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땅크병들은 그들대로 땅크에 정통하고 계시는 그이의 비범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격장에 가시면 그분의 사격술이 놀랍다 못해 너무도 신기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대포면 대포, 함선이면 함선, 통신이면 통신, 그분께서는 그 어느 병종이나 군종에도 정통하고 계시는 만능의 영장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처럼 군사가가 지닐 수 있는 모든 자질과 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신 데는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백전백승의 영군술과 모든 군사지식을 체득하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바쳐 오신 데 있습니다.

이미 있은 강의들을 통해서 이야기 됐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준엄한 항일전쟁의 결 군사야영훈련 전장에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례없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첨예한 사변들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에 장군님께서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전쟁의 온상은 존재하며 따라서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처해서 군사적으로도 튼튼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런 확신에 기초하셔서 일찍부터 비범한 예지로 군사지식을 습득하시어 대학시절에 이르러서는 군사전문가들도 따를 수 없는 상상봉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사야영훈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그이께서 당시에 보여주신 이신작칙의 모범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시에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법 그리고

군사행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정통하도록 대학생들과 군사교관들을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군사야영기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사교관들과 야영생들에게 노동계급의 혁명무력건설원칙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전법의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해설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사적 식견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동서고금에 이름난 격전들과 전법들 그리고 수많은 요새들을 비롯한 군사시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그 우단점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군사교관들과 야영생들은 모든 전쟁과 전투들 그리고 현대전의 모든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내리시는 그분의 뛰어난 군사사상에 모두 경탄을 금치 못해 했습니다.

그이께서 지니고 계시는 군사사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의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전개하지 않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때 대학생들과 군사교관들을 끊임없이 깨우쳐주시고 이끌어주신 많은 사실들 가운데서 한 가지 사실만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야영훈련이 계속되던 어느 날 휴식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야영생들 가운데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들은 휴식시간을 리용해서 전쟁승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화제에 올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군사리론에 밝다고 하는 한 야영생이 선행 고전가들이 내놓은 리론을 잘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공고한 후방과 잘 갖추어진 무장을 가져야 하고 군대의 도덕적 품성과 사단의 질이 좋아야 하며 지휘관의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요인들 가운데서 공고한 후방은 항구적인 요인인데 바로 그것이 전쟁승리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덧붙였습니다. 모두들 그의 이야기가 그럴 듯 하다고 공감해 나섰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시기 고전가들은 전쟁승리의 요인을 항구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항구적인 것을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했는데 오늘의 견지에서 보면 그 견해는 제한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선행고전가들은 전쟁승리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따라서 전쟁승리에서 노는 내적요인의 결정적 역할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셔서 전쟁에는 내적요인과 함께 외적인 요인도 작용한다, 그러나 전쟁승리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의 내부역량이며 외부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특히 전쟁승리의 결정적 요인인 내부역량 가운데서도 사람이 전쟁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전쟁법칙에 적용하시어 승리의 요인을 명철하게 분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위에서 실례를 든 전쟁승리의 요인문제만이 아닙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모든 군사문제들을 기성리론에 구애됨이 없이 그리고 세계전쟁역사에 기록된 모든 것들에 대한 해박한 군사적 식견에 기초하시어 독창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당시 그분께서 밝혀주신 군사사상과 리론, 주체전법들은 노동계급의 당의 군사리론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됐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야영훈련 전 기간 전술과 사격훈련에서도 언제나 야영생들의 앞장에 서시였습니다.

그분의 사격술이 매우 비상하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격술은 능숙하다든가 신기하다든가 하는 말로써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신비의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야영훈련을 총화하는 실탄사격에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신묘한 사격술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야영훈련을 진행하시는 나날에 군사규정의 요구대로 훈련에 참가하시고 제정된 일과대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느 야영생들과 다름없는 꼭같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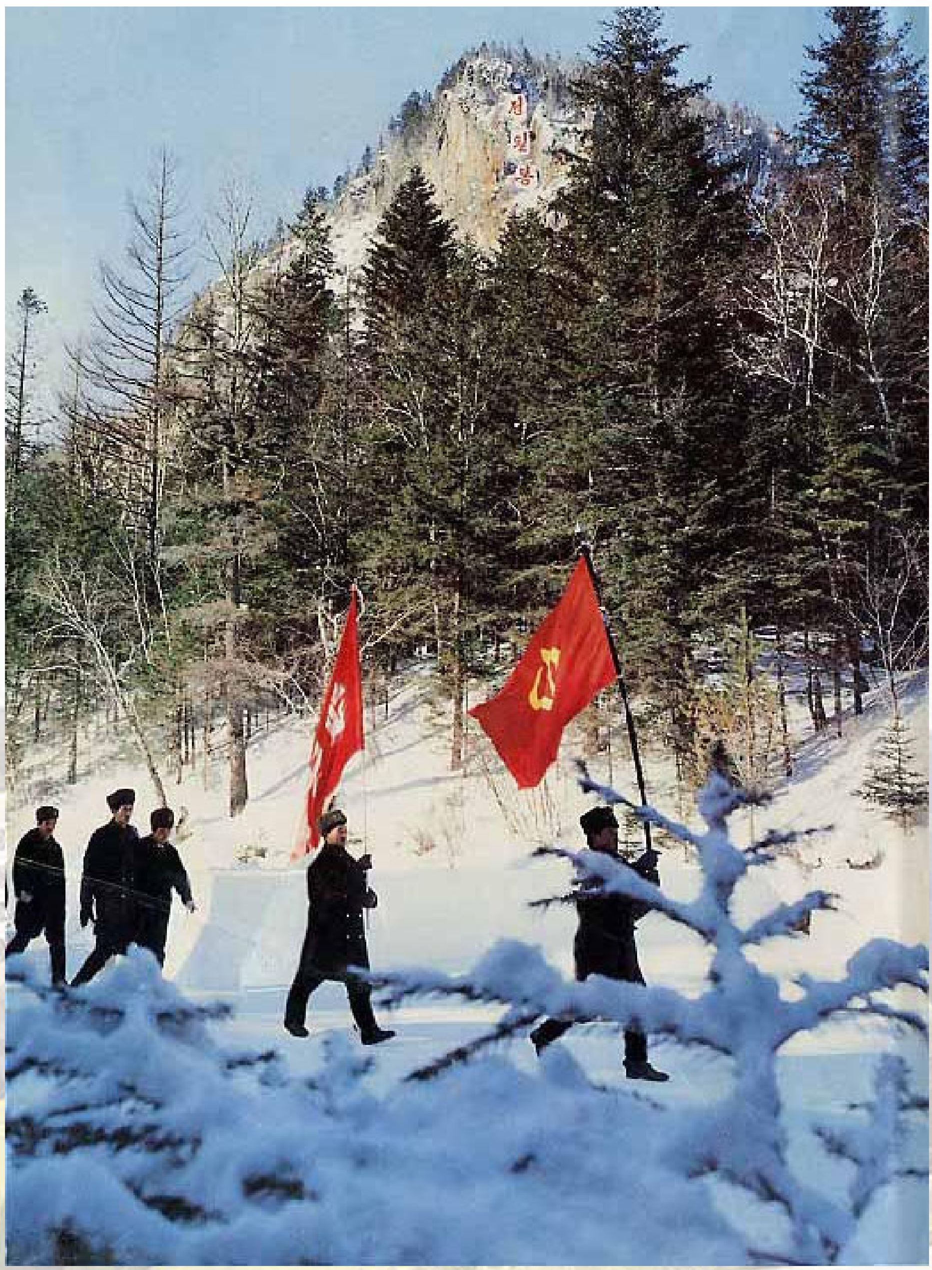
그럼 그에 대한 사실을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야영훈련초기 일꾼들과 야영생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조용한 병실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군사야영기간에는 자신도 훈련소의 한 훈련생이라고 하시면서 이 기간에 아침기상으로부터 저녁 취침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과생활을 일과표대로 동무들과 함께 하면서 보초도 서고 식당근무에도 나가 밥을 지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야영생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꼭같이 일과생활에 참가하셨습니다. 일꾼들과 야영생들은 그분을 딴 방에 모시지 못해 몹시 죄송스러워 하다가 식사만이라도 따로 보장해 드리기로 의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따로 차려 가져간 식사를 갑기 때문에 입맛을 잃은 동무에게 돌리시구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야영생이 해야 할 일이라면 궂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찾아하셨습니다. 소대 앞에 식당근무가 차려지면 선참으로 위생복을 입고 나서시어서는 국거리를 다듬는 일,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일, 부엌 아궁이에서 석탄재를 파내는 일 등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밥물을 보시면 밥이 질지도 되지도 않아 먹기 좋다고 평판이 자자했고 국을 엄청나게 많이 끓여도 덧국을 요청했고 그래서 국가마의 취사성원들의 몫이 남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이께서는 야영훈련 전 기간 평범한 야영생이 되시어 오직 하나의 규률속에 소박하게 생활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야영훈련 나날 생활을 락천적으로 하도록 야영생들을 이끌어주고 보살펴주셨습니다.

그 실례의 하나가 악기를 자체로 만들어 오언동 골 안을 노래소리로 차 넘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던 항일투사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적탄이 우박치는 고지에서 화선악기를 만들던 전쟁시기 우리 인민군 용사들의 혁명적인 락관주의정신을 본받아 야영생활기간 자체의 힘으로 악기를 만들어보자고 야영생들을 적극 고무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피리와 단소를 만들도록 하시고 이어서 현악기도 만들게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점심시간에 쉬지 않으시고 몸소 산에 오르셔서 오동나무 박달나무 홍송같은 나무들을 찍어오셨고 그 나무를 켜서 말리우고 다듬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보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 대피호로 쓰던 갱도에 가셔서 마구 떨어지는 석수 속에서 통신선을 걷어오셔서는 그것으로 악기줄을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우리식의 독특한 민족악기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오언금으로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군사야영훈련기간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 전법을 심오히 연구체득하시고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전투구분대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훌륭히 갖추신 나날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은 숭고한 영장의 풍모를 남김 없이 보여주신 뜻깊은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